

야구의 계절 돌아온다… KIA 시즌권 11일부터 판매

챔피언스필드 전 좌석 입장료 동결…K3존 평일 8000원·외야 9000원
휴일엔 2000원 추가 부담…중고생·군경 3000원·어린이는 50% 할인

2019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 요금이 동결됐다.
KIA 타이거즈가 7일 2019시즌 홈 경기 입장요금을 확정해 발표했다. 모든 좌석의 요금을 동결해 많은 팬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관람석은 지난해와 같이 K9존, K7존, K5존, K3존, 외야석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내야 중앙 지정석인 K9존은 성인 1만4000원, 1·3루 내야 하단석인 K7존은 성인 1만2000원에 판매한다. K5존은 성인 1만1000원이다.
내야 상단석인 K3존과 외야석 요금도 각각 성인 기준 8000원과 90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K9, K7, K5, K3, 외야석 가격은 평일 기준이며, 휴일에는 각각 2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일반석의 경우 중고생 및 군경은 성인가에서 3000원 할인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50% 할인 판매한다.
포수 뒤편 챔피언석은 4만5000원(휴일 5만원)이

며, 중앙테이블 2인석은 평일 8만원(휴일 9만원), 중앙테이블 3인석은 평일 12만원(휴일 13만5000원)이다.
이밖에 그라운드와 같은 눈높이에서 관람이 가능한 1·3루 베이스 옆 서프라이즈석은 2만2000원(휴일 2만5000원)이며, 파티석(4인석)과 스카이 피크닉석(4인석)은 각각 10만원(휴일 12만원)과 7만원(휴일 8만원)이다.
1·3루 가장자리에 위치한 타이거즈 가족석은 4인석과 6인석의 요금은 각각 7만원(휴일 8만원)과 10만5000원(휴일 12만원)이다. 외야 테이블석인 에코다이나믹스석(6인석)은 9만6000원(휴일 10만8000원)에 판매한다.
1~3급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은 매진 시를 제외하고 외야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또 K9석에 위치한 장애인 지정석은 4000원(휴일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4~6급 장애인, 경로 우대자는 일반

석에 한해 입장료 50%를 할인받는다. 문화누리카드로는 일반석(테이블석, 특별좌석 제외)에 한해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시즌 입장 요금을 확정된 KIA는 11일 오후 2시부터 홈 경기 시즌권 판매에 들어간다.
시즌권은 KBO 정규리그 홈구장 72경기를 기준으로 하며, 중앙 테이블석(3인석)과 지정석에 한하여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070-8191-7890, 7899)를 통해 28일 오후 6시까지 판매한다.
시즌권 가격도 지난해와 같다.
중앙테이블 3인석은 677만2000원에 판매하고, 챔피언석은 1인 기준 253만원이다.
내야지정석인 K9존은 79만5000원, K7존은 72만원, K5존은 6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문의 : 티켓링크 070-8191-7890, 7899)
한편 3월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개막전 입장권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예매는 인터넷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 사이트나 모바일 앱, 전화(1588-7890)를 이용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2019 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 요금 안내					〈단위:원〉
좌석명	성인/어린이	가격		비고	
		평일	휴일		
K9 석	성인	14,000	16,000		
K7 석	성인	12,000	14,000		
K5 석	성인	11,000	13,000		
K3 석	성인	8,000	9,000		
외야석	성인	9,000	11,000		
챔피언석(1인)	할인없음	45,000	50,000		
중앙테이블석(2인석)		80,000	90,000		
중앙테이블석(3인석)		120,000	135,000		
1,3루 타이거즈 가족석(4인석)		70,000	80,000		
1,3루 타이거즈 가족석(6인석)		105,000	120,000		
파티석(4인석)		100,000	120,000		
스카이 피크닉석(4인석)		70,000	80,000		
에코다이나믹스석(6인석)		96,000	108,000		
서프라이즈석(1인석)		22,000	25,000		
장애인 지정좌석(K9석 위치)		4,000	5,000	동반1인/현장판매시	
휠체어석	내야석	4,000	5,000	인터넷예매가능 /동반자 현장판매시	
	외야석	무료		등급 1~3급 무료	



덩크슛 참교육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케빈 듀랜트가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كل랜드의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2018-2019 NBA 정규리그 경기 후반에 슛하고 있다. 골든스테이트는 이날 샌안토니오를 141-102로 대파했다. /연합뉴스

야구 대표팀 다음주 코치진 인선 완료

이달말 오키나와서 국내·일본 프로팀과 연습경기 관전

야구 국가대표팀의 새 사령탑에 오른 김경문 감독이 다음 주중 코치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표팀 구성 작업에 나선다.
국가대표 코치진은 오는 11월 열리는 2019 프리미어12 규정에 따라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투수 코치가 2명이고 배터리·주루(수비)·작전·타격코치 1명씩 임명될 예정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KBO 관계자는 “김 감독께서 되도록 현역 코치가 아닌 야구인 중심으로 대표팀 코치진을 구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인력풀을 고려하면 현역 코치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포수를 지도할 배터리 코치는 인력난이다.

KBO는 지난달 기술위원회 구성 당시에도 포수 출신 인사를 한 명 포함하려 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팀 코치진이 구성되면 김경문 감독은 이달 말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해 연습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다.
2월 말 오키나와에서는 KBO리그의 SK, 한화, KIA, 삼성, 롯데, LG 6개 팀이 훈련하면서 일본 프로야구팀 등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김경문 감독은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둘러본 뒤 3월 9일과 1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일본과 멕시코 대표팀의 평가전을 관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FC, 창단 첫 외국인 수비수 영입

UAE 국가대표 아슬마토프, 위치 선정·불 처리·통패스 강점

프로축구 광주 FC가 창단 처음으로 외국인 수비수를 영입했다.
광주는 7일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수비수인 아슬마토프(22·Rustam ashurmatov)를 영입해 수비진을 강화했다.
185cm·74kg의 체격의 아슬마토프는 수비 시 위치 선정과 안정적인 불 처리, 정확한 통패스 등이 강점이다. 또 스피드가 좋아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속팀인 분요드코르에서 4시즌(2015-2018) 동안 91경기 5골을 기록했다.
2013 FIFA U-17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4 AFC U-19 챔피언십, 2015 FIFA U-20 월드컵 등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아슬마토프는 2017년 그루지아전을 통해 A매치에 데뷔했다.
이후 2018 아시안게임 8강을 견인한 그는 AFC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선제

골을 기록,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아슬마토프는 “나에게 광주는 첫 해외 진출 팀이자 새로운 도전의 무대”라며 “광주의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팀에 잘 적응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지난 시즌 아쉬움을 보완하고 반드시 승격하겠다는 의지”라며 “아슬마토프는 풍부한 경험이 있고, 팀 스타일과도 일치한다. 올 시즌 광주의 수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마친 아슬마토프는 곧바로 팀에 합류해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분데스리가 ‘코리안 더비’ 지동원 웃었다

이재성과 컵대회 맞대결…아우크스부르크, 홀스타인 킬에 1-0 승

독일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공격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과 이재성(홀스타인 킬)이 2018-2019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에서 한국인 선수 맞대결을 펼쳐 지동원이 웃었다.
지동원은 7일(한국시간) 독일 킬의 홀스타인 슈타디온에서 열린 DFB 포칼 3라운드(16강) 홈경기에서 후반 15분 마르코 리히터 교체 선수로 출전해 30분을 뛰며 1-0 승리와 함께 8강 진출에 힘을 보탤다.
독일 2부 홀슈타인 킬의 미드필더 이재성은 후반 39분 교체 투입됐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지동원의 팀 동료로 지난 4일 마인츠와 독일 분데스리가(1부) 20라운드에서 독일 진출 후 통산 2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구자철은 결장했다.

선발 명단에서 빠진 지동원은 팽팽한 0-0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15분 최전방 투톱 공격수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지난 4일 마인츠전에 선발 출전해 페널티킥을 유도했던 지동원은 중앙에서 빠른 움직임으로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벤치를 지키던 홀스타인 킬의 이재성은 후반 39분 일본인 선수 마사야 오쿠가와 교체 선수로 기용됐다. 그러나 홀슈타인 킬은 이재성 교체 투입 후 1분 만에 아우크스부르크에 실점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미하엘 그레고리치가 후반 40분 결승 골을 터뜨리면서 1-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